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

시리아 아동의 이야기

Save the Children

"제가 장례식에 있을 때였어요. 로켓탄 소리가 들리더니
그 참사가 일어났어요. 부상당한 사람들이 시체와 함께
길가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신체 일부도 보았어요"
하산HASSAN, 14세

사진 Jonathan Hyams/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30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개 사업장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전화 02-6900-4400
팩스 02-6900-4499

"알라라는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6살이었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지요. 알라는 그 방에 있던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가혹하게 고문을
당했고 음식도 물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쇠약해져서 늘 기절해 있었어요.
시시때때로 두드려 맞았고요. 전 아이가 죽어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3일 만에 죽었지요.
죽기 전에도 아이는 항상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아이의 시체를 마치
짐승 다루듯이 막 대했어요. "
와엘WAEL, 16세

이 참혹한 이야기는 16살 소년이 한 증언입니다. 와엘이 목격한 것은 충격을 넘어 국제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아픈 상처로 남을 것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실상을 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리아를 탈출한 수천 명의 아이들과 가족이 머무르는 난민캠프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에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당시 인터뷰의 기록으로, 고문과 잔혹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증언이 담겨있습니다. 아이들은 폭탄과 총에 맞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삶을 유린하는 일이 날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뭘 보았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에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2살 소년 알리Ali가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지금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저스틴 포사이스JUSTIN FORSYTH,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대표

서문

시리아의 내전이 깊어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잔인한 공격에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 받으며 살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상과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들이 이 같은 끔찍한 기억을 딛고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 국경 지대의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 전쟁 중에 보고 겪은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밝혀내고자 증언을 모았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자료집은 아이들이 전쟁 중에 경험해야만 했던 잔혹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족이 죽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잔혹한 상황에 갇혀 대량 살상을 지켜보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아서는 절대로 안될 것을 보았고 겪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은 유엔UN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가 최근 진행한 전쟁 범법 행위 조사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 자료집에 나타난 범법 행위는 여전히 되풀이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을 향한 범법 행위를 모두 기록해서 이러한 잔혹함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전쟁의 양 진영에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미 유엔이 아동을 향한 범죄 행위를 조사•기록하고 있지만 분쟁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법 행위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9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공개토론을 개최한 데에 이어 유엔 산하 감시 및 보고 기구들은 시리아 무력 분쟁 중에 벌어진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공식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인권 유린 실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유엔은 아동 폭력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리아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자료집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입니다.

자료집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이 자료집에 수록된 글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언

시리아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유엔이 모든 범법 행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진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가 이미 아동 대상 범죄에 주목하고 있음을 분쟁의 양 진영에 알려야 합니다. 시리아 아동들을 위한 청원에 서명해 주십시오. 유엔과 회원국이 시리아 아동들에 대한 모든 범죄를 즉각 중단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사용해 줄 것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파괴된 삶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미 시리아 국경 지대의 지역사회와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며 분쟁을 피해 온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식수와 담요 등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하며 아동들이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금이 부족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르단 자타리ZA'ATARI 난민 캠프의 난민등록센터 텐트 그늘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살할 거라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파라FARAH, 17세

하산 HASSAN

14세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로켓탄 소리가 들리더니 그 참사가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을 공격하려 했나 봐요. 제 사촌과 삼촌이 그날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들이 시체와 함께 길가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신체 일부가 제각기 떨어져 나와 뒹구는 것도 보았어요. 사원에 가니 수천 구의 시체가 있었어요. 우리는 곧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학살이 일어난 뒤 이틀간 개들이 시체를 먹어 치웠어요. 사원에 있던 수 많은 사람이 모두 죽은 거에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 삶이 싫었고 제 자신도 미웠어요. 저는 이미 삼촌과 사촌을 잃었어요.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하던 사촌이었는데 그런 사촌을 잃은 거에요. 언제나 제 편이던 친구였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불타 버렸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어느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고문을 당하고 폭탄과 총을 맞고 있거든요. 무장 괴한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 앞에 세워요.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향해 총을 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에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아이들이 시리아를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폭탄을 맞지 않거든요.

시리아하면 기억나는 것이요? 폭격이 일어날 때마다 대피소로 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크게 흐느꼈어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고문을 당했어요.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저희는 이제 뛰어 놀 수가 없어요. 집이 너무나 그립고 이웃들도 보고 싶어요 축구도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시리아 아이들을 모든 폭격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는 약이 필요해요. 우리도 옷과 음식이 필요해요. 모든 아이들은 뛰어 놀며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가 너무 두려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요?

14세인 하산은 가족과 함께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산은 시리아에서 벌어진 학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현재 텐트 하나에 부모 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칼리드 KHALID

15세

“그들이 제 손목을 묶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마구 때렸어요”

계속되는 폭탄과 폭격, 그리고 고문 때문에 시리아를 탈출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도 못한 채 말이에요.

전 체포되었어요. 이 자국이 보이세요? 그들이 제 양 손을 플라스틱 줄로 묶였어요. 아주 단단하게요.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손이 묶인 채 있었어요. 손을 풀어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들은 줄을 더 단단히 조였어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리 마을로 왔어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잡아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그 감옥은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은 저를 고문하기 위해 학교로 끌고 갔어요. 제가 공부하던 그 장소로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학교를 점령했고 고문센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마다 너무 슬퍼요. 울고 싶을 뿐이에요.

그곳에 열흘 동안 갇혀 있었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똑바로 서있어야만 했죠. 눈은 붕대로 감기고 손은 플라스틱 줄에 묶인 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저처럼 손이 묶인 채 그 교실에 갇혀 있었는데, 그 중 한 남자 아이는 고작 열두 살 이었어요. 그 아이 역시 5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 아이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고작 12살인데 말이지”라고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나요.

이틀 후에 교실 밖으로 끌려 나와 심문을 당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그들이 제 손목을 묶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게 천장에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마구 때렸어요. 그들은 무엇이든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했죠.

한 시간 정도 매질이 이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절해 버리죠. 누구라도 그렇게 두 시간 이상 매달린 채로 있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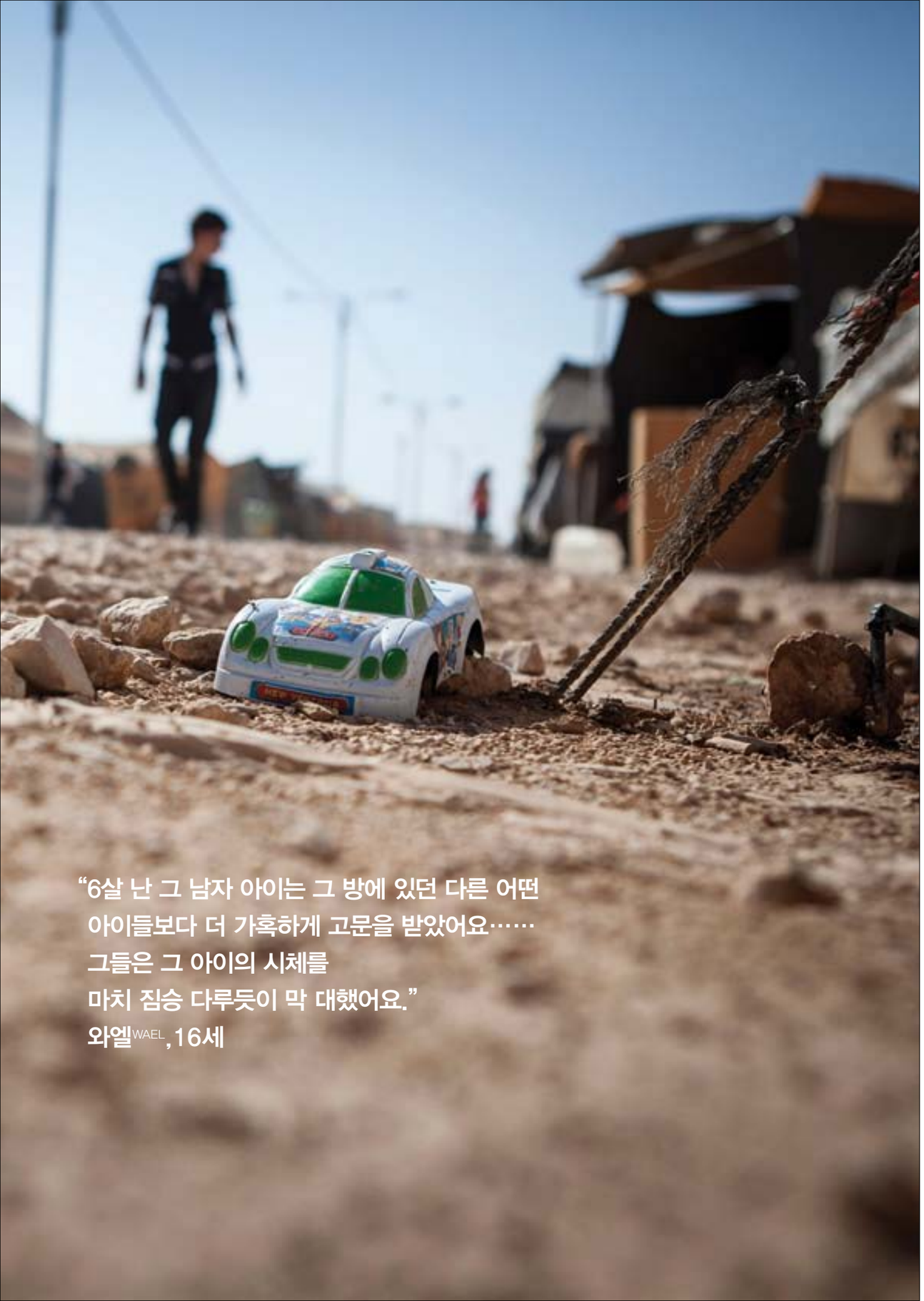
저도 기절했어요. 그렇게 매달린 채로 두들겨 맞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들은 저를 천장에서 내리더니 정신을 차리도록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는 번갈아 가며 담뱃불로 제 몸을 지졌어요. 이게 바로 그때 생긴 흉터예요.

그 사람들은 저와 함께 있던 12살 남자 아이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아이들만 전기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손톱만큼의 인정도 자비도 없었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우리를 고문했던 그 무리에는 7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학교와 병원 등 가리지 않고 고문 장소로 이용하죠. 약을 제공해주던 곳이 이제 고문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곳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했어요. 우리편이 아이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앞세우고 마을로 쳐들어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학교를 점령했고 고문센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와엘WAEL

16세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시는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달째 자타리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어요. 왜 시리아를 떠났냐고요? 시리아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 초반에는 제대로는 아니어도 살 수는 있었어요. 대피소에 가서 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갖가지 무기를 사용해요. 전에는 대피소에 있으면 안전했지만 지금은 각종 무기로 지하실에 있는 것까지 모조리 다 파괴해요. 저는 당시 벌어지던 일들을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폭격과 파괴, 고문 같은 것 말이에요.

시리아 집에서 저희는 정원에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 숨었어요. 세 사람이 웅크릴 수 있는 크기였지만 폭력이 시작되면 형제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구멍을 고철 덩어리로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를 모래로 가려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몇 시간이고 그 상태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숨었을 때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너무도 무서웠어요. 그들이 우리 형제를 찾아 죽일까 봐 너무 겁이 났어요. 무장 괴한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구덩이로 들어가 대피했어요. 폭격이 시작되면 지하실로 숨어 들었고요. 폭격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대개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는 대학살과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날이에요. 금요일 기도 모임에서 반격이 시작될까 봐 그런 거지요.

한번은 저도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체포되었어요. 무장 군인들은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16살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많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는 모조리 비좁은 감옥에 갇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바닥에 작은 구멍만 나있을 뿐 화장실도 없었어요.

우리 중에는 부모가 수배 중인 어린 애들도 있었어요. 모두 13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음식도 물도 먹을 수 없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무장한 사내들이 그 아이들을 에워싸고 먹을 것을 주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을 만큼 약해졌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각목으로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매질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던 알라라는 남자 아이도 그 중의 한 명이었어요. 6살이었지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수하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라는 그 방의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가혹하게 고문을 당했어요. 사흘 동안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아이는 너무 약해져서 거의 늘 기절해있다시피 했어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그 아이를 두들겨 팼어요. 저는 아이가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 보았어요. 3일 만에 죽었지요. 죽기 전에도 아이는 항상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이의 시체를 마치 짐승 다루듯이 막 대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면 아마 더 심하게, 더 많이 맞았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울음 소리만 들렸고 고요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곳을 벗어난 순간 죽음을 모면했다고 느꼈어요. 제 생각엔 지금 어느 누구도 시리아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 인류애라는 것이 1%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제 자신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죽으면 적어도 이것은 끝나겠죠. [이 부분에서 와엘은 울기 시작했다] 고문을 당하는 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아픈 일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느낄 거에요. 시리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전쟁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웃는 아이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웃을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을에 어떤 아이는 전쟁 중에 목격한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훨씬 심각해요. 그 아이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그들은 슬프고 겁에 질린 아이들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공원에 함께 놀러 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엄마들이 아이를 지하실에 숨겨요. 아이들은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죠.

저는 못 견디겠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 보았어요. 이제 다시는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잔 RAZAN

어머니

“그들 중 한 명이 내기를 걸더니 아이 머리에 바로 총을 쐈어요.”

데라아 카락에 있는 집으로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제 뒤로 걷고 있던 무장한 사내 둘이서 뭔가 내기를 하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들었어요. 그들은 조준 연습을 할 표적을 찾던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내기를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8살 소년을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늦었지요. 한 명이 그 아이 머리를 향해 총을 쏘았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도망가고 거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바닥에 쓰러졌고 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확히 맞지 않아 아이가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길가에 있던 집에서 아이의 엄마가 달려 나와서 울부짖었어요. 그녀가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 사내들은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라고 소리치면서 거리에 총질을 했고 아이의 엄마를 계속 위협했어요.

결국 아이는 집 앞 길바닥에서 그렇게 혼자 죽었어요.

아마니 AMANI

13세

“대피소에 있을 때 한 번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발작이 왔어요. 언니는 제가 신경쇠약이래요”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견딜 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마을에 폭격이 시작되고는 내리 열흘을 지하실에서 보냈어요. 고문과 학살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직접 그 광경을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하지만 고문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았어요. 하맘 오빠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7개월 전에 그들이 삼촌 집에 쳐들어와서는 각목으로 오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빠 등에 번갈아 올라가서 뛰었어요. 오빠는 심하게 맞아서 지금도 걷지 못해요.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아 오빠가 갈 병원도 없었어요. 결국 삼촌이 오빠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맞은 직후의 오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저는 오빠가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희 가족은 오빠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우리가 시리아를 떠날 때에는 오빠를 집에 혼자 두고 떠날 올 수 밖에 없었어요.

짐을 제대로 챙길 여유도 없었어요. 제 소지품이 하나도 없어요. 오빠를 떠올릴 추억거리도요.

이곳 난민 캠프에서 사귄 친구 하나는 엄마가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았대요.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대피소에 있을 때 한 번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발작이 왔어요. 언니는 제가 신경쇠약이래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배도 안 고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를 때마다 울음이 터져서 항상 울어요. 얼마나 오래 지나야 괜찮아질지 모르겠어요. 평생이 걸리지 않을까요?

파라 FARAH

17세

“친구들이 제가 자면서도 엄마를 소리쳐 부른대요. 가끔씩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소리지르기도 한대요”

감옥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나무 기둥에 묶더라고요.

이틀 동안을 개 패듯이 맞았어요. 총대로도 맞았고 채찍과 각목으로도 맞았어요. 그것 말고는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온 몸을 때렸어요.

처음 맞았을 때 몇 시간 동안 아무 감각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기절했지요. 그 상태로 계속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었나 봐요. 눈을 떴는데 여전히 그 상태더라고요.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날에는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살할 거라고 여겼나 봐요.

할머니와 엄마가 오셔서 저를 풀어달라고 애걸하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등이 아파요.

친구들은 제가 자면서도 엄마를 소리쳐 부른대요. 가끔씩은 “저리 가, 저리가!”라고 소리지르기도 한대요”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이 가져온 물건을 텐트로 나르고 있습니다

알라아 ALA'A

10세

“음식을 빼앗아 팽개치고 먹지 못하게 짓밟았어요”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엉엉 울면서 도망쳤죠.

폭격을 당한 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식도, 물도, 장난감도. 아무 것도 없었고 시장과 상점도 폭격을 당해 음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남은 음식을 아껴 먹느라 하루에 한 끼 밖에 못 먹었어요.

음식이 충분치 않아서 아버지께서 여러 날을 빈 속으로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허기를 느끼지 않으려고 끈으로 윗배를 동여매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어느 날 총을 든 남자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러고는 음식을 빼앗아 팽개치고 먹지 못하게 짓밟았어요. 그러고 나니 남은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우리는 이곳으로 왔어요.

나빌 NABIL

알라아의 아버지

“미치기 일보직전이었어요. 탱크에 묶인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야 했지요. 그런 무력감은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엉망이 되었어요. 아들 알라아는 자주 웁니다. 왜 우는 지도 말해주지 않아요. 몽유병도 생겼습니다. 다른 아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더 어린 아이들은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거나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지기만 해도 울음을 터트립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지요. 다른 부모들과도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그렇다 하더군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애들이 애들 같지 않아요. 아무 아이나 붙잡고 보세요. 아이들이 노는 게 평상시와 같아 보여도 잠시 뿐이에요. 이내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시리아에 있을 때 두 아이를 제 손으로 직접 묻었습니다. 11살 된 마허Maher와 3살 된 와셈Wasem이었지요.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줄 셈으로 아이들을 칼로 베었어요.

마을에 버려진 와셈의 시체를 제가 옮겼습니다. 목이 잘리고 팔꿈치에는 총알이 박혀있더군요. 시체를 추스를 때가 기억납니다. 총알이 팔에 빗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곧 깨달았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빗맞은 게 무슨 소용인가요?

와셈은 정말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수다쟁이였죠. 마을 사람들 모두 그 아이의 미소와 뛰어 노는 모습을 사랑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죽고 없습니다.

아이들은 최전방에서 여러 가지로 이용당합니다. 어떤 아이가 총알받이로 이용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탱크 두 대가 마을로 들어서는데 그 탱크에 아이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과 발, 몸통이 묶여있었지요. 탱크가 마을을 지나는데 아무도 막거나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일이 있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미치기 일보직전이었지요. 탱크에 묶인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런 무력감은 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사이데Saydeh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모두가 이곳에서 이런 참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하메드 MOHAMAD

15세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고 쇠붙이나 시멘트 벽돌을 던져 사람 머리를 치기도 했어요……”

시리아에 있을 때 총성과 폭격, 화염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과 인근 마을에 폭탄을 쏟아 부었어요.

어떤 자비도 없었어요. 공중 폭격으로 사람들을 죽였지요. 근처에서 공중 폭격이 시작되면 우리는 대피소나 지하실로 피했어요. 어떤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라마단 기간에도 총성과 폭격은 끊이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25명이 죽었죠.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고 쇠붙이나 시멘트 벽돌을 던져 사람 머리를 치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하기도 했고요.

그들에게는 종교적 믿음이나 이성이 없어 보였어요.

난민 캠프에 온 이후로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어요. 운동장에 데려다 주지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여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병들어가요. 오늘은 제 남동생 한 명도 몸이 아파요.

전 세계에 있는 아랍인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는 해요.

모하메드 MOHAMMAD

17세

“그들이 6살짜리 아이의 손톱을 모조리 뽑아버렸어요”

시리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두 살짜리 여자 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제 눈으로 직접 그 아이의 삼촌이 아이의 시체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총알이 아이의 가슴 옆에 박혀서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고작 두 살밖에 안된 꼬마였는데 말이죠.

제가 시리아를 떠나기 직전에 마을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시위대 중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아이들도 있었죠. 곧 시위자를 처벌하겠다며 무장 괴한들이 학교로 쳐들어 갔어요. 그들은 1학년에서 7학년까지 교실을 돌아다니며 50명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골라내서 손톱을 모조리 뽑아 버렸어요. 그 중에는 6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괴한들은 아이들을 놓아 주지도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헛수고였어요. 무기조차 없는 우리는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도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시리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체포되기도 하고요. 공중 폭격과 폭탄, 탱크 행렬에 남아나는 집이 없어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는 거죠. 가족 중 누군가는 죽거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느 한 집도 무사한 집이 없어요.

시리아에서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에요. 어떤 날은 집이 부서지고 또 어떤 날은 가족 중 한 명이 죽어요. 하루도 무사한 날이 없어요. 언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알 수도 없죠.

저희 가족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총격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총탄을 맞았고 여동생 두 명도 총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말이죠. 다행히 모두들 살아남았지만 삼촌은 돌아가셨어요.

거리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녀석을 한 번 죽여볼까? 이 여자는 어때? 누가 이 여자를 죽일거지?” 그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웃집들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한 번은 대피소가 지하에 있는 3층짜리 집에 갔는데 폭격으로 지하실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모조리 날라가 버렸어요. 그날 밤, 13 명이 죽었는데 그 중 4명이 아이들이었죠. 폭격을 보자마자 달려갔지만 흙먼지에 뒤덮인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시체들을 묻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대피소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폭탄, 폭격, 탱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모조리 파괴하고 있어요.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 있는 아이들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에서
미술 활동에 참여합니다.

인근 다른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찾아 다니고 있어요. 한 대피소에서 아이 50명을 발견하고는 모조리 죽였대요. 머리에 총을 쏘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죽이는 데 거침이 없었던 거에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싶어요. 정말 일어난 일이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리아에 있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한다고 해도 5분 뒤에 여전히 살아있을 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은 폭격 때문에 겁에 질려 매일 울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도와주었어요. 머물 장소를 찾아 주었고 먹을 것과 마실 물도 가져다 주었어요.

"시리아에서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에요"
모하메드MOHAMMAD**, 17세**

무사 MOUSSA

15세

“매일 맞았어요. 전기 고문도 당했고요”

저는 경찰에 붙잡혀서 22일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고문을 당했고 다른 아이들이 죽는 것도 보았어요. 발과 가슴, 등에는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수 백 명의 아이들이 감옥에 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큰 방에 갇혀 있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은 9살이나 10살 정도였고 인질로 잡혀 와 있었어요. 저는 매일 맞았어요. 전기 고문도 당했고요.

감옥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들은 시체를 계속 발로 걷어찼어요. 제가 있던 감옥에도 시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대로 두니 썩기 시작하면서 구더기가 끓었어요. 결국에 저는 풀려났어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 담요로 저를 옮겼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희를 멈춰 세우더니 제 신분증을 보고 저희 마을로 데려왔어요. 다시 가족을 만났고 병원에도 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등이 아파요.

이곳에는 쌍둥이 형제와 함께 왔어요. 저희 형이 그 아이를 병원에서 보살피고 있어요. 그 애는 집이 공격을 받았을 때 2도 화상을 입었어요. 탱크가 지나다녔고 폭격도 있었어요. 5개월 전 형제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무장 괴한들은 집과 상점을 약탈하고 어린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학교와 병원, 사원까지 노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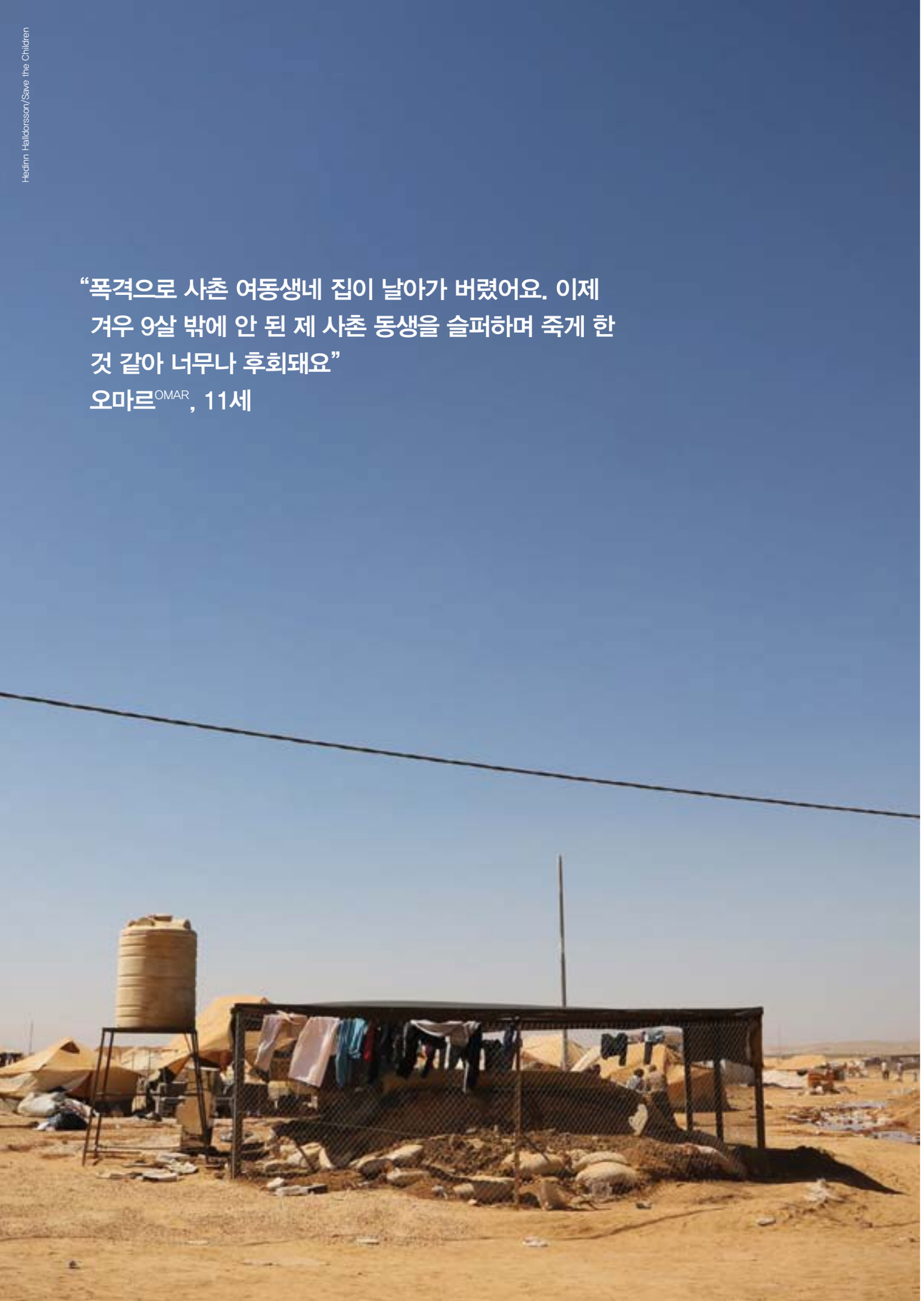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요르단에 계세요. 어머니는 건강 때문에 난민 캠프를 떠나셨어요. 원래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난민 캠프의 먼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지도 20일이 지났어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난민 캠프에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날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만든 아동친화공간CHILD-FRIENDLY SPACE에 가요. 하지만 신나게 놀지는 못해요. 예전에는 낯을 가리지 않고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너무 슬퍼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거든요. 자면서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Photo: Hedinn Halldorsson/Save the Children

Hedinn Halldorsson/Save the Children



"폭격으로 사촌 여동생네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겨우 9살 밖에 안 된 제 사촌 동생을 슬퍼하며 죽게 한 것 같아 너무나 후회돼요"
오마르OMAR, 11세

오마르OMAR

11세

"너무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 조차 없었어요."

계속되는 폭격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쟁 때문에 시리아를 떠날 수 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전 정말 무서웠어요.

한번은 옆집에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깜작 놀라 잠에서 깼어요. 너무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 조차 없었어요.

하루는 사촌 동생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저와 동생들이 사촌 여동생을 짓궂게 괴롭혀서 여동생은 결국 단단히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날 밤, 폭격으로 사촌 여동생네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겨우 9살 밖에 안 된 제 사촌 동생을 슬퍼하며 죽게 한 것 같아 너무나 후회돼요.

전 집이 폭격을 맞지나 않을까 걱정됐지만 엄마와 여동생은 집에 남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밤이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자기 시작했고요. 폭격이 집 근처에 떨어질 땐 정말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폭격 소리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시리아를 떠날 때 이미 폭격 파편에 문이 없어져 버리기는 했지만 우리 집이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럭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쟁이 한창일 때 불에 타버려서 이젠 남아있지 않아요. 트럭을 방패막이로 이용했거든요.

모하메드 MOHAMAD

24세

**“기억하지 않는 대학살이라고 불러요.
언론도, 분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놀았지만, 지금은 폭탄 파편이나 총기와 총알을 가지고 놀아요.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특정한 사람만 대상이 되었고 무기도 폭탄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탱크에, 로켓탄에, 저격수도 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여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학살만으로 거의 200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않는 대학살이라고 불러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언론도, 분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무장한 사람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고 말하려고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도망쳤지만 한 남자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많이 왔어요. 평화로운 시위쯤으로 여겼거든요. 아마 1,000명쯤 왔는데 그 중 절반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장례식을 나서는 데 수 많은 사람이 고함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린 무작정 도망쳤어요.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220명 정도가 죽었더군요. 우리가 발견한 시체만 그 정도이니 아마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심각하게 다친 사람도 450여 명이에요.

시체가 어디에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형체를 알아 볼 수 조차 없었죠. 살점과 다리, 피가 도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다친 사람과 시체를 끌어내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도왔어요. 손이 보여서 빼내려고 잡아당겼더니 손밖에 없었어요. 다리를 잡아당겼더니 다리뿐이었고요.

사람들은 도처에서 사랑했던 이들의 시체를 찾아 다녔어요. 우리는 부상자와 시체를 사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사원도 폭격을 당했어요. 그곳에 있던 부상자가 다 죽었지요. 한 30명쯤 죽은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 도움을 청했지만 끊임없이 거절 당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폭격이 끝났으리라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폭격도 로켓탄도 더 많아졌고 총격전도 벌어졌어요. 대학살 때만해도 저격수는 없었어요. 이후로 저격수가 들어왔지요. 그때서야 저희는 시체를 따로따로 묻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220명을 한 곳에 묻어주기로 했지요.

제 사촌과 삼촌도 대학살 때 죽었어요. 사촌은 열여섯 살이었어요. 그들의 주검을 찾아서 옮겨 왔어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들을 묻어주었지요.

대학살이 끝난 뒤, 마을은 유령 마을이 됐어요. 큰어머니는 사촌이 죽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을을 꺼나길 거부했어요. 사촌이 살아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망연자실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이유 없이 학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유 없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저도 4개월 정도 갇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감옥은 가로 세로 4미터 정도로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70명이 비좁게 들어서 있었지요. 아이들과 노인도 있었어요.

감옥에는 통풍용 작은 창문과 새 수감자가 겨우 들어올 만한 아주 작은 문이 있었어요. 잠이라도 자려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일어서야 누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문 근처에서 자려고 했어요. 방 안의 냄새가 너무 지독했거든요.

그 방에는 남자들만 있었어요. 여자 방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도록 했어요. 감옥에서 아기를 낳은 여성도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체포됐어요. 고문을 받았지요. 고문을 받은 대다수가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디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1살짜리가 체포돼서 고문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있나요? 그 아이들은 11살, 12살, 13살밖에 안됐다고요.

아이들을 고문할 때마다 갖가지 고문 도구를 쓴대요. 어른을 고문하는 것처럼 고문한다고요. 아이가 시위에 가담이라도 하면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어요.

저도 고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상처만 남았어요. 고문 받은 이후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혀에는 아직 상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들이 제 머리를 내리치고, 혀를 억지로 잡아 당겼어요.

전기 고문도 받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았어요. 저희는 같은 감방에 있었는데, 간수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기로 손과 다리, 성기까지 고문했어요. 아이들이 피를 철철 흘릴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아이들의 손을 묶기도 했어요. 제발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아주 꽉 묶었어요. 느슨하긴커녕 손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어요. 많은 아이들이 고문으로 죽어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석방되기도 했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어요.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그 아이들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 시리아 아동의 이야기

“그들은 전기로 손, 다리, 생식기까지 고문했어요”

때로는 아이들을 독방에 집어 넣었어요. 아이들은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졌지요. 그 아이들은 12살에 불과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에요. 물론 그 아이들이 살아 남는다면 말이죠.

감옥에서 나갈 유일한 방법은 돈을 내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 돈을 내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아이들이 놓인 처지를 말하고 다녀요. 너무나 화가 나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기억을 지우려면30년, 40년, 아니 50년쯤 걸릴 거예요. 전쟁을 겪은 뒤로 아이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초반에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총을 주고 국경 쪽에 배치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강제로 군인 앞에 총알받이로 세웠어요.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커요. 시리아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는데 모두 명백한 거짓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대학살 이후 하루하루가 모두 충격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시간 날 때는 DVD를 보거나 페이스북에 들어가고는 했어요. 인터넷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나 웹사이트를 보는 것도 좋아했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는 난민 캠프의 텐트에 앉아 있어요. 제 삶이 어찌될 지 모르겠어요.

학살을 멈춰야 해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만 죽여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사진 Heðinn Halldorsson/Save the Children

누르 NUR

9세

“저희를 해치는 일이라면 아무 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지 않아요. 왜냐고요? 더 이상 어리지 않거든요.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자는 일이 전부예요.

시리아에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축구를 하거나 다른 놀이를 했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더니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희를 해치는 일이라면 아무 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초반에 그들은 탱크로 포격하다 나중에는 공중 폭격기와 폭탄, 미사일 등 무엇이든 다 썼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떠났죠.

정말 끔찍해요. 저희는 사촌과 고모, 이웃들과 함께 대피소로 피했어요. 저는 숨바꼭질을 좋아했어요. 숨는 게 죽는 것보다 나아요.

난민 캠프에 있는 것이 시리아에 남는 것보다 나아요. 거기에서는 저희에게 총을 쏴대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은 총격이나 폭격 당할 일이 없어요. 전쟁이 끝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시 놀고 싶어요.

라에드 RAED

아버지

“죽은 아이들 모두 제 자식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 아들은 폭격이 벌어지던 가운데 대피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생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밤 10시에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에 있었는데 폭격 때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격이 멈추지 않아 저희는 대피소를 찾아 떠났습니다. 제 아내는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어 당장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약품도 없었지요. 저는 의사를 찾으러 대피소를 뛰어나갔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사를 데리고 와서 아내의 출산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제가 시리아를 떠난 이유도 바로 아이들 때문입니다.

폭격은 너무 위험했고 언제 시작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견디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에게 다음 폭격이 언제 시작될 지 말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폭격에 익숙합니다. 일단 폭격이 시작되면 대피소로 내달렸습니다. 폭격이 어디쯤 왔는지, 집이 파괴되는 지 살펴보거나 기다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피소에는 물도 없고 전기마저 끊겨서 암흑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지친 데다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픕니다. 대피소로 올 때 비상 식량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모두 동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대피소에 사흘씩 머무르는데 그러고 나면 먹을 거리와 물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총알이나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 거리요? 아이들이지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시체가 모래 더미에 나뒹구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들 모두 제 자식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는 누구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애썼고, 우리 손으로 잔해에 묻힌 시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일년 반이 넘도록 전쟁을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이 잔혹한 전쟁 때문에 시리아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아버지 라엘 씨는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폭격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하메드 MOHAMMAD

17세

**“최악의 밤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눕지도 못했지요.”**

그들은 마을에 와서 15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붙잡았어요. 저는 사흘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곤봉으로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다음 날 밤, 저는 심문을 당했어요.

그들은 제 손을 묶어 매달고는 제게 욕을 지껄이며 채찍으로 후려쳤어요. 물을 쏟아 붓기도 했어요.

최악의 밤이었어요. 가로 세로가 4m, 3m쯤 되는 감옥에 수많은 사람을 집어 넣었어요. 잠도 못 자고 눕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죽었어요. 제 삼촌이 그들과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저는 풀려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저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폭탄이 12개나 떨어졌어요. 전쟁에 가담한 한 무리가 학교를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예요.

여자들한테는 강제로 땅에 묻힌 시체를 파내게 해서 개가 시체를 먹어 치우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묘지도 폭격을 당해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졌어요.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기까지 했어요. 도움 받을 의료시설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 없는 사람들은 과다 출혈로 죽었어요. 이 옆의 텐트에 있는 여성의 남편도 그렇게 죽었어요.

Atli Heidar Haraldsson/Save the Children

요르단 자타리ZA'ATARI 난민 캠프의 난민등록센터 텐트 그늘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해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쟁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아마 그 고통은 영원할 거예요.”

알리 ALI

12세

“제가, 그리고 우리 시리아 국민이 무엇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폭격 때문에 시리아를 떠나야만 했어요. 매일 밤 공포에 질려서 깼어요. 시리아에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그들이 집을 쳐들어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그리고는 문짝과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어요. 우리가 지하실에 숨어 있는 동안 음식도 훔쳐갔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목숨을 끊고 싶으실 거에요.

저에겐 17살 된 사촌 형과 9살짜리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폭격으로 죽었어요. 폭격 때문에 집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사촌 형수도 함께 죽었어요. 그 아기를 누가 돌보죠? 그 아이 말고도 사촌네 조카가 3명이 더 있어요.

폭격이 있을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사촌들이 떠올라 울음이 터졌어요. 사촌 네 집을 보았을 때는 정말 미치도록 슬펐어요.

사촌들이 죽은 날에도 폭격은 계속 쏟아졌어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폭탄 두 개가 떨어졌어요. 처음 것은 사촌네 집을, 다음 것은 마을 사원을 폭파시켰어요. 너무 무서워서 정신 없이 달려 공중전화 박스에 숨었어요. 조금 있다가 길가로 나와 엄마를 찾았죠. 폭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무서웠어요.

학교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학교가 공격 대상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폭탄이 학교로 떨어졌죠. 여덟 살짜리 둘째 사촌 동생도 다쳤어요. 그 아이네 집이 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곳 난민 캠프로 올 때 사촌 동생 오마르OMAR는 따로 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찾으려 온 텐트를 다 돌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다녔어요. 그렇게 헤매는데 마침 사촌 동생이 절 발견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저는 강해졌어요. 제가, 우리 시리아 국민이 무엇을 겪었는지 상상조차 못하실 거에요. 무장한 괴한들이 처음으로 집에 쳐들어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에 왔을 땐 조금 덜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처럼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남동생이 저보다 더 용감해요. 괴한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도 제 동생은 겁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번에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웃들이 제일 그리워요. 그리고 그곳 공기도요. 이곳 공기와는 달라요. 그곳 사람들도,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산책하던 기차역도 모두 다 그리워요.

예전에는 공원에 가서 축구도 하고, 학교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녔어요. 우리끼리 놀이를 짜서 같이 놀았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즐거웠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더 이상 저와 함께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놀 수도 없어요.

학교가 좋아요. 운동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학교 나무 아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촌과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참 좋으셨고요. 학교에 다니지 못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겠죠.

이곳에는 집과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전 세계 누구라도 좋아요.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12살인 알리는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형제들과 한 텐트를 나누어 씁니다.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한 아동이 먼지 바람을
뚫고 텐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문테르 MUNTHER

10세

**“그 아이가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앞으로 고꾸라졌죠”**

길가에 있었는데 총성이 울렸어요. 우리는 학교 바깥에서 사진 찍으려고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많았지요.

총격이 시작되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어딜 보나 총알과 피가 흩어져 있었어요.

암자드AMJAD라는 아이가 제 곁에 서 있었어요. 그 아이가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죽은 줄 몰랐어요. 그는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 아이는 15살이었어요.

이어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도 총에 맞았더라고요. 제 목의 흉터 보이시죠. [문테르의 목에 두 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 앞쪽에서 옆을 스쳐 지나간 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목 뒤에 있었습니다.]

다행이 친구 어머니가 곁에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바로 저를 업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셨지요.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암자드의 장례식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는 암자드의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암자드가 생전에 입던 교복을 입혔어요. 그 동상을 들고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날 참 슬펐어요.

1년을 내리 학교에 나가지 못해 큰 문제예요. 언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데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일년 반이 넘도록 전쟁을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이 잔혹한 전쟁 때문에 시리아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라엘RAEL, 아이의 아버지

Save the Children